

# 在日韓國人の 社會運動史

李 光 奎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序

1. 聯合軍司令部時代  
2. 日本政府時代

3. 韓日會談以後

結 論

序

1981年 6月 31日 現在 韓國外務部가 集計한 在外國民 分布狀況을 보면 總人員 1,590,853名中 北美地域이 685,981名(43.1%)이고, 日本地域이 670,890名(42.2%)이며, 其他地域이 233,982名(14.7%)이다. 기타 지역에는 東南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시아에 19,817名, 中近東에 160,893名, 유럽에 29,214名, 中南美에 22,832名, 그리고 아프리카에 1,226名이 분포되어 있다. 이것 이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는 共產圈 국가로 中共에 190萬名, 그리고 蘇聯에 38萬 9千名, 도합 2百 28萬 9千名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共產圈에 居住하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現在 海外에 居住하는 韓國인이 3百 87萬 9千名이 넘는 數로 이것은 大韓民國에 거주하는 人口의 約 10%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總人口의 1割이라면 그 數가 적지 않기 때문에 海外僑胞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 重要한 것은 그 1割이 韓國의 農村이나 都市에 居住하는 人口 1割과 實的인 面에서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들이 祖國인 韓國에 관광객이나 방문단으로 와서 소비하는 外貨도 있고, 父母와 親戚을 돋기 위해 보내는 援助金이 막대하다는 經濟的 理由 이외에 그들은 外國人們 사이에서 生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미지가 外國人에게 어떻게 反映되느냐에 따라 外國人이 韓國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되기에 그들은 바로 民間外交官인 것이다.

在外國民은 이와같이 經濟와 外交上 重要한 資源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他文化·他社會에 流入하면서 겪어가는 과정은 文化接變(acculturation)의 과정으로 他文化 속에서 本來의 文化인 韓國文化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여 가느냐 하는 問題는 韓民族의 民族正體性(ethnic identity)과 韓文化의 特性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學問上 關心의 촛점이 되는 文化接變과 民族正體性에 관한 問題에서 특히 韓國人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在日韓國人の 問題이다. 韓國文化와 日本文化의 차이보다 韓國文化와 美國文化의 차이가 더 크다는 데서 在美韓國人の 文化接變問題가 在日韓國人の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學問的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在日韓國人은 他社會·他文化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심한 差別과 遍見 속에서 生活하기 때문에 韩國人에게는 在日韓國人の 문제 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文化人類學의 立場에서 在日韓國人을 問題삼을 때, 在日韓國人の 移住史, 在日韓國人の 生活相, 在日韓國인이 받는 差別과 遍見의 問題, 差別에 대한 在日韓國人の 反應과 意識構造의 問題 등 많은 問題가 있겠으나, 이곳에서는 특히 在日韓國人の 社會運動史를 보기로 한다.

在日韓國人の 社會運動史란 1945年 解放 이후, 1974年 民團이 權益運動을 展開하기 시작하는 時期까지의 약 30년의 歷史에 걸쳐서 在日韓國人の 社會가 경과하여 온 과정을 말한다. 이 時期는 1910年 韓日合併에서 1945年 解放 까지의 在日韓國人の 歷史와 性格上 차이가 있다. 이 時期는 主로 韩國인이 自意 또는 他意로 日本에 移住하여 가는 이른바 形成期라 할 수 있다. 1945年 解放 以後 1946年 年末까지 三次에 걸친 歸還이 끝이 나고 日本에 留居하기로 결정한 在日韓國人 60萬名은 祖國인 韓國과는 다른 條件과 환경속에서 美軍, 日本, 韓國, 北韓의 力學關係 속에서 스스로의 生活을 영위하여 왔다

最近 2~3年前부터 韓國의 言論界에서 在日韓國人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日刊·週刊·月刊紙 등에 韩國人이 밀집된 大阪市 生野區의 모습, 關東大地震時의 韩國人 大虐殺, 또는 학대에 못견디어 自殺한 中學生 林賢一君의 追慕會 등이 크게 부각되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在日韓國人에 대한 최근의 關心이 있기 전, 韓國에 있는 韩國人은 韓國內의 問題가 많아 在日韓國人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解放에서부터 韩國인이 在日韓國人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1970年 中期, 즉 省墓團이 대량으로 王牌하게

될 때까지 韓國과 在日韓國人은 獨自의 길을 걸어온 時期이다.

在日韓國人을 理解하려면 이 時期를 이해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 時期는 단순히 在日韓國人이 獨自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在日韓國人の 意識構造가 이 時期의 경험에서 소생되었으며, 日本人의 差別과 遍見의 태반도 이때 형성되었고, 이 差別과 遍見에 대항하는 精神도 이 때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1945年 8月 15日 解放에서 1974年 民團의 權益運動이 시작될 때까지의 特색은 民團과 朝總聯을 中心한 두 集團間에 무서운 투쟁이 있었던 時期이다. 따라서 이 時期를 社會運動史란 이름으로 表示하였다. 民團과 朝總聯의 투쟁은 戰後 日本이란 特殊한 상황속에서 在日韓國人이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몸부림인 동시에 韓國과 北韓이란 韓半島 政勢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政治的現象이기도 하였다.

다시 이 時期는 在日韓國人 社會를 주도하던 集團의 發展에 따라 細分될 수 있고, 크나 큰 事件에 따라 그 時期를 나눌 수도 있겠으나, 이곳에서는 韓國, 日本, 美軍司令部와 같이 보다 외각적인 條件으로 時期를 나누어 1期는 1945年에서 1952年 사이의 聯合軍司令部時代, 2期는 1952年에서 1964年까지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 이후 日本政府時代, 그리고 3期는 1964年 韓日會談 이후 1974년까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 1. 聯合軍司令部時代(1945~1952)

1945年 8月 15日 正午, 日本放送이 日本의 聯合軍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5년에 걸친 太平洋戰爭은 끝이 났고, 심한 爆擊으로 황폐한 위에 혼란과 무질서로 완전히 마비된 日本에 聯合軍이 統治하는 司令部 時代가 전개된다.

#### (朝連)

解放當時 日本에는 約 2百萬의 韓國人이 있었으며, 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祖國의 家族·親戚들과 再會하기 위해 귀국을 서둘렀으며, 이러한 歸國事業을 돋기 위해 또 혼란된 社會속에서 서로의 生命과 財產을 보호하기 위해 都市마다 洞里에까지 사람들이 모여서는 마치 비온 뒤에 축순과도 같이 委員會과 團體 등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큰 團體만 하여도 3百餘個나 되

있었다.

이러한 自生的 團體를 규합하여 全日本의 團體를 結成하기 위하여 1945年 9月 10日, 「在日本朝鮮人連盟中央準備委員會」를 이룩하였으니, 이곳에 美國側을 代表하는 趙得聖이 委員長이 되고 日本側을 代表하는 權赫周와 共產側을 대표하는 金正洪이 各各 副委員長이 되었다. 이들의 주선으로 全國의 地方에 조직을 확대하고 全國大會를 갖게 된 것이 10月 15일이다.

東京의 日比谷公會堂에 全國에서 모인 代表者 5千名이 會合을 갖고 「在日本朝鮮人連盟」을 결성하였다. 이 連盟의 宣言文에 따르면 第二次世界大戰의 終結에 의해 우리 朝鮮人은 장차 自由와 獨立된 榮光을 약속받았다. 우리는 總力を 다하여 新朝鮮建設에 努力하고, 關係當局과 긴밀히 연락하여 日本國民과의 友誼關係를 보전하고, 在留同胞의 生活安定과 歸國同胞의 便宜를 도모하려 한다는 内容이다(李瑜煥, 1974:4).

이에 10月 17일까지 縣·市·區에 이르는 朝連의 下部組織의 구성을 완성하고, 舊總督府의 建物을 占有하여 事務室로 하며 舊總督府에 속하였던 사택을 소유 또는 매각하고, 大阪에 있던 朝鮮銀行 등은 朝連이 朝連의 財產으로 하였다.

朝連이 團員의 碩보와 더불어 經濟的인 기반을 확고히 한 것은 위에서 본 總督府의 建物을 인수받은 것 이외에, 歸國者들을 도와 얻은 수입이다. 歸國者에 편리를 도모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이외에 그들로부터 銀行通帳, 공체, 국채증서, 적금통장 등을 양도받았으며, 日本政府로부터 歸國者の 경비를 받아냈으며, 무엇보다 日本政府와 韓人을 고용하였던 會社로부터 韓人 勞務者에 대한 임금, 死亡者的 배상금 등을 받았다. 예컨대 1946年 4個月간에 朝連이 日本의 大藏省에서 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1億圓이나 되었다(R. Mitchell, 1967:105).

한편 在日韓國人の 生活의 安定을 위하여 水害를 입었을 경우 즉시 원조를 해주고, 범죄가 있으면 감싸주고, 暗市場에서의 活動을 도와주며 무엇보다 教育과 文化事業에 주력하여 한글로 新聞 雜誌 등을 출판하였다.

朝連이 在日韓國人을 위한 組織이지만 당초 共產黨員으로 17年을 감옥 생활을 하고 解放과 더불어 출감된 金天海를 最高顧問으로 추대했었기 때문에 朝連은 左傾하게 된다. 金天海는 朝連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日本 共產黨의 中央委員이고 政治局員이며, 朝鮮人 部長을 중임하고 있었기 때-

문에 朝連은 日本 共產黨의 下僕으로 변신하게 된다.

### (民 團)

朝連이 親日派 幹部와 民族系 幹부들을 추방하고 左傾하자, 朝連에 반대하는 人事들이 「朝鮮建國促進青年同盟」(建青)을 結成한다. 朝連이 當初의 組織 目的인 社會厚生의 事業보다 政治的으로 기울며, 특히 在日韓國人の 98%가 南韓 出身이면서 朝連이 北韓을 지지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 自由民主主義를 바라는 青年들이 11月 16일에 結成한 것이다. 그러나 강한 指導者가 없고 經濟的 基盤이 약하여 初期의 運動과는 달리 弱體를 유지하다가 1950年 당시 文教部 長官인 安浩相의 訪日을 계기로 「大韓青年團」으로 개칭하게 된다.

建青이 青年層으로 이루어진 團體이기 때문에 壯年層은 다른 組織體를 염원하고 있을 때, 1946年 1月 20日 反天皇無政府主義者로 22년이나 투옥되었던 朴烈이 秋田刑務所에서 석방되었다. 反朝連勢力은 朴烈을 中心으로 1946年 2月 10日 「新朝鮮建設同盟」(建同)을 결성하였다. 朝連을 의식하고 對立을 했으나 이미 基盤을 굳힐 여지가 없어 建同은 朝連에 열세를 면할 수 없었다.

建同이 朝連과 충돌하는 것은 信託統治反對運動에서이다. 1945年 12月 모스크바의 外相會談에서 韓國에 대한 美·蘇·英·中 4個國에 의한 5年間의 信託統治를 선언하였다. 韓國에서와 같이 在日韓國人 社會에서도 처음에는 모두 信託統治를 反對하였으나 朝連은 北韓의 共產黨과 같이 信託統治를 지지하고 建同과 建青은 反託民衆大會를 가졌다. 그 후에도 東京의 神田에서 朝連과 非朝連의 暴力的 충돌이 있었으나 朝連이 우세한 立場이었다.

建同은 體制를 강화하기 위하여 1946年 10月 3日, 東京 日比谷公會堂에서 大會를 갖고 「在日朝鮮人居留民團」이라 改稱하였으니 이것을 「民團 第一次 宣言」이라 한다. 東京大會에 이어 各縣에 地方本部를 조직하여 民團도 全國組織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民團은 上部로부터 하강하는 組織體였으며 이미 구축한 朝連의 기반을 침투하기란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李瑜煥, 1971:94).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이 수립되고 大韓民國은 民團을 在日韓國人の 合法的 團體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民團은 全國大會를 10月 5日 소집하고 그 名稱을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으로 改稱하였으니 이것을 「民團 第二次 宣言」이라 한다.

韓國政府는 1949年 9月 17日 海外旅券規則을 제정하고 이에 앞서 在外國

民登錄令을 내렸다. 그리고 在日韓國人을 위한 在外國民登錄事務와 在日韓國人의 旅券事務를 民團에 위촉하였다(李瑜煥, 1971:104).

#### (朝連傘下團體)

建青이 朝連을 反對하고 結成된 青年團體라면 建青에 상응하는 朝連系 青年團體가 「民主青年同盟」(民青)이다. 처음 朝連 痪하에 青年들이 주동하는 自治隊가 있었다. 이것이 韓國人引揚列車妨害를 위한 暴力行爲로 인하여 美軍으로부터 解散당하였다. 그 후 1946年 5月 10日 全國의 自治隊長이 集合하여 民青을 結成한 것이다.

朝連 傘下團體로 女性들의 團體인 「在日朝鮮民主女性同盟」(女同)이 있다. 이것은 朝連內의 女性들이 1946年 11月에 組織한 것으로 처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뒤에 보는 阪神教育事件時, 그리고 朝連이 解散된 후에 큰 활동을 하여 朝連의 명맥을 잊게 한다.

朝連 傘下團體로 「在日朝鮮人留學生同盟」(朝學同)이 있다. 解放된 초기 1945年 9月 4日 日帝時의 財團法人 朝鮮獎學會를 계승하고 留學生들의 단결을 위하여 朝學同을 組織하였으니, 이 때에는 左右翼의 區別이 없었다. 1949年 5月 明治大 講堂에서 있었던 總會에서 左右學生이 충돌하더니 1950年 5月 右翼系 學生들이 朝學同에서 分離하여 별도의 學生會인 「在日韓國人留學生同盟」을 組織하였다. 이로서 朝學同은 완전히 朝連의 傘下團體로 된다(李瑜煥, 1971:18).

朝連의 傘下團體의 하나로 「朝鮮解放救援會」(解救)가 있다. 1946年 12月 20日 首相官邸暴事件이 있었고, 이때 牺牲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解救이다. 특히 阪神教育事件 때 큰 활약을 하였고 朝連이 해산된 후로는 左翼을 이끄는 主導的 역할을 하였으며, 民戰이란 團體가 생기면서 그 산하단체가 된다(李瑜煥, 1971:22).

#### (美軍의 對韓人 態度)

聯合軍司令부가 설치된 初期 美軍의 對韓人 態度는 상당히 同情的이었다. 특히, 二次大戰時 強制로 勤員되어 不利한 條件에서 일을 하면서도 日人보다 劣等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日本政府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民族과 人種의 구별없이 法앞에 平等하듯 고용과 노동조건 및 처우에서 韓國人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要求하고 日本에 간류하려는 韓國人에 대하여서도 기회, 권리 등에 절대 차등을 두지 않도록 권유하였다.

韓인이 사소한 범죄로 日本法庭에 나가게 되면 美軍들은 美軍法으로 처리<sup>23</sup>하도록 돌려 日本法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처벌도 가볍게 하여 주었다. 특히 韓國人들을 통역관으로 기용을 하고 이들에게 美軍 대우를 하여 많은 특권을 주었던 것이다(E. Wagner, 1951:57).

그러나 韓國인이 勝戰國인 聯合國의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 또 中立國이나 敵性國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탈리아, 핀란드와 같이 終戰으로 인하여 敌性國에서 非敵性國으로 地位가 바뀐 나라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다. 日本에 있는 모든 사람이 食糧配給을 받을 때 臺灣人은 聯合國과 같이 外國人 대우를 받았으나 韓國人は 이것에서도 除外되어 日本人과 같은 범주에 속하게 하였으며, 稅金도 日本人과 같이 내게 하였다(E. Wagner, 1951:59).

이러한 聯合軍司令部의 처사에 在日韓國인이 만족할 리 없었다. 韓國人の 요구는 日本에 對敵하는 戰勝國으로서의 대우였다. 그러나 美軍은 時間이 갈수록 韓國人の 非行이 드러나자 初期의 同情과는 달리 韓國人을 싫어하는 증오심까지 갖게 되어 日本人의支配를 받게 하였다.

在日韓國人の 처우문제로 고민하던 聯合軍司令부가 확실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1946年 11月 12日字 워싱턴 성명이 있은 후의 일이다. 워싱턴 聲明은 “聯合軍司令部의 歸還計劃에 따라 귀국하지 않으려는 韓國人은 日本國籍을 갖고자 하는 자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물론 在日韓國人은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美軍은 이 선을 유지하면서 日本人의 對韓人政策을 후원하게 된다(E. Wagner, 1951:59).

#### (日本의 對韓人 態度)

解放直後, 日本政府는 解放된 韓國人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특히, 聯合軍司令부의 태도가 애매하자 日本政府는 모든 것을 방관하는 立場으로 심지어 韓國人の 不良行爲나 不法行爲를 보더라도 日本警察은 간섭치 않고 美軍에게 보고할 정도였다.

한편 美軍이 보이지 않는 鎌山에서는 곳에 따라 聯合軍司令부의 지시를 어기고 韓國人 鎌夫를 위협하여 勞動을 계속하게 하거나 심지어 감금을 하고 학대를 하기도 하였다.

歸還事業에 있어서도 日本人이 성의껏 일할 리 없었다. 귀국하는 日本人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는 日人이 귀국하는 韓國人에 대하여는 불친절하고 까다롭게 하였으니 예컨대 귀국에 필요한 조치나 수속 등을 자세히 계시치 아

니하고 현장에서 검색을 철저히 하여 귀환자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었다(E. Wagner, 1951:59).

日本政府가 직접 在日韓國人에 대한支配권을 갖게 되자, 日本은 감시와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특히 言論과 여론을 동원하여 韓國人을 저질로 평가하게 하여 日人の 욕구불만의 탈출구로 삼고 日本人이 韩人을支配할 수 밖에 없었다는 正當性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日本社會의 不安要因인 暗市場, 少年犯罪, 질병, 密航 등이 모두 在日韓國人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日本이 큰 혼란속에 있다는 것이었다. 1946年 6月 13日字 東京 每日新聞의 기사에 暗市場 단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自民黨 간사이 大野의 發言, 大藏省大臣 石橋의 發言, 특히 8月 17日 議會에서 행한 椎熊三部의 發言 등은 모두 韩國人에 의한 暗市場이 日本經濟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日本警察이 防犯 포스터 붙이는 데 태극기에 도둑의 얼굴과 칼 등을 그려 넣어 東京 上野地區에 수백 장 붙이기도 하였다(R. Mitchell, 1967:110).

當時 在日韓國人으로서는 日本에 反抗할수록 不利한 地位로 하락하였으며 美軍까지 日本便에 서는 것이었다. 美軍이 日本人의 反韓히스테리에 동조한 한 예가 1946年 8月의 新聞 기사이다. 즉 “5千名의 韩國人이 밤에 日本에 上陸하여 약탈을 하고 귀국하였으며, 韩國인이 콜레라와 티푸스같은 유행병을 전염시키고 暗市場을 경영하고, 둘려보내면 되돌아와 많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후에 기사내용이 옳지 않음이 밝혀졌으나 이것이 당시 美軍의 對韓人 態度의 일면이었던 것이다(E. Wagner, 1951:61).

#### (在日韓國人의 立場)

歸國치 아니하고 日本에 잔류하게 된 사람은 日本에 이미 상당한 財產이 있어 이것을 韓國에 가져갈 수 없거나 韩國에서 生活을 영위할 보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부자와 극빈자가 남고 中間層과 勞務者들이 귀국한 것이다.

日本에 남은 在日韓國人은 日帝의 횡포로 억울하였던 過去를 보상받기 위해 解放된 民族으로서의 特別待遇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韩國人은 二等國民이지만 日本人은 四等國民이라고 民族的 자부심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R. Mitchell, 1967:109).

解放直後, 日本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全國民이 配給制에 의해

연명하였지만 配給만으로는 生活을 유지할 수 없어 이곳에 菲연적으로 暗市場이 형성되었다. 梶村秀樹가 지적하던 암시장은 戰時부터 있어 왔고, 當時 大衆生活에 不可缺한 것이었으며 의지할 곳 없는 韓國人은 제면없이 暗市場에 투신한 것이다. 農村에서 쌀을 사다 市場에 가면 쉽게 팔렸고, 술 配給이 없기에 密造酒는 날개돋힌 듯 팔렸다. 암시장의 거래는 위법이기에 日警과 美軍의 단속이 있었고 이것에 組織的으로 대처하기 위해 韓國人們은 朝連에 의존하였던 것이다(梶村秀樹, 1982:28).

在日韓國인이 암시장에서 재미를 본 것은 解放後 約 1年間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모아 일부에서는 食堂으로 발전하고 일부는 美軍에 납품하는 生產工場을 설치하였으며, 일부에서는 所有를 주장치 못하는 특수 사정에 있는 日人을 代行하면서 事業을 성장시켜 갔다. 그러나 日人과 공정한 입장에서 競争은 할 수 없었다. 韓人의 대부분이 특수한 技術이 없었기 때문이다.

1946年이 지나면서 在日韓國人은 사양길에 들어선다. 韩인이 경영하는 食堂등이 위생기준의 미달로 폐쇄당하니 大阪市에서만도 6百餘 食堂이 문을 닫았다. 日本人은 혼란을 극복하고 再建하면서 韩人을 除外시켜 예컨대 貿易協會 등에서 韩人을 가입치 못하게 했으며 製造業界에서도 原資財의 구입과 製品의 판로들에서 韩國人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 失業者 구제도 日本人에 한하는 것이었다(E. Wagner, 1951:63).

#### (財產稅問題)

生活條件이 不利하여지면서 在日韓國人은 새로 제시되는 條件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反抗을 하는 事件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中에서도 財產稅問題, 外人登錄拒否事件, 그리고 阪神教育事件을 三大事件이라 한다.

1946年 日本政府는 財產稅를 과세할 목적으로 10萬圓 이상의 財產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등록토록 하고, 여기에서 聯合軍은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財產稅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韩國人은 모두 千名 정도로 추정되었지만, 모든 在日韓國人은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在日韓國人은 그간 韩國인이 40年間이나 빈곤과 노예상태에서 日本에게 稅金수탈을 당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稅金은 침략전을 위한 것이라 하여 財產登錄을 거부하였다. 특히 韩國인이 日本을 위해 稅金을 낼 필요가 없으며 外國人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 Wagner, 1951:65).

이러한 意志를 在日韓國人은 12月 13日 聯合軍司令官인 맥아더將軍에게

호소하고, 20일에는 官城前 廣場에 2千餘名이 모여 生活權擁護人民大會를 열고 이어 首相官邸로 행진하며 데모를 벌였다. 데모대가 官邸를 포위하고進入하자 武裝警官 3百餘名과 美軍憲兵 20餘名이 출동하여, 결국 주도자 15名을 체포하고 데모대를 해산시켰다. 이들은 모두 5년의 구형에 처하여지고 韓國人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李瑜煥, 1971:31).

#### (外人登錄事件)

1946年末 日本은 특히 大阪地域에 韓國인이 밀집된 地域에 암시장 거래가 성하고, 密航者가 많은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外國人 登錄을 실시하였다. 이것을 확대하여 日本政府는 聯合軍可令部의 양해를 얻고 1947年 5月 2일 外國人 登錄을 선포한다.

이에 대한 在日韓國人은 民團 朝連 구별없이 모두가 反對하였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行動의 自由를 구속하는 것이며 登錄에는 사진을 첨부하는 指紋을 찍으며 항시 휴대하여야 하기에 마치 戰時體制로 가는 것과 같으며, 무엇보다 이런 面에서만 韓國人을 外國人 취급하는 것이 공평치 못한 치사라는 것이다.

在日韓國人은 이른바 5個項의 抗議文을 채택하여 日本政府에 발송하였다. 5個項이란 1) 外人登錄法이 國際法에 기초하지 않았고, 2) 이것을 行하려면 日本政府가 아니라 韓國人 組織이 집행 할 것이며, 3) 外人登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面에서 韓國人을 外國人으로 취급할 것이고, 4) 在日韓國人の 生命과 財產을 보호할 것이며, 5) 日本政府는 日本人에게 在日韓國人の 地位를 존중하도록 할 것 등을 內容으로 한다.

1947年 7月 31日 登錄 마감일이 되어도 등록한 사람이 없었다. 日本政府는 한달을 연장하면서 설득을 계속하여 이차 마감일에 東京에서 全人口의 3%, 大阪에서 5%가 등록하였다. 이번에는 聯合軍司令部에서 직접 설득에 나서 外人登錄은 在日韓國人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抗議內容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였다. 결국 在日韓國人은 二次, 三次에 걸쳐면서 外人登錄을 실시하여 모두 登錄을 하였다(E. Wagner, 1951:67).

#### (阪神教育事件)

三大鬭爭 中에서 가장 극렬하고 컸던 것이 이른바 「阪神教育鬭爭」 또는 「朝鮮人學校 閉鎖事件」이라 하는 것이다. 解放後 在日韓國人 社會의 한 特性이 있었다면 教育熱이었다.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文化

를 박탈당한 反動으로 解放을 맞은 在日韓國人은 場所만 있으면 子女를 모아 한글과 우리의 歷史를 가르쳤다. 이것을 講習會라 하며 韓國人이 몇 명만 모이면 강습회를 조직하였다.

講習會가 좀 큰 규모의 것은 日本學校의 遊休施設을 빌려 使用하고 國語와 國史를 토대로 차차 日本의 教育을 모방하면서 學校로 化하여 갔다. 이런 것이 學校란 명목으로 存在한 것이 1947年 10月 현재 小學校가 541個校, 中學校가 7個校, 青年學校가 22個校, 學院이 3個校이며 이에 수용된 韓國人學生이 6萬 2千餘名이고, 教員이 1千 5百餘名이었다.

이들 學校들은日本人의 立場에서 보면 施設·教師·教課 등에 문제가 많았다. 學生과 教師의 비율이 50:1이었고, 教師들은 수준이 미달이었으며, 資格證을 소유한 사람도 없었다. 教課過程도 불충실하지만 教課書도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 朝連의 左傾化에 따라 이들 學校에서 共產主義 教育을 했으며 그 度는 上級學年으로 갈수록 심하였다.

이러한 당시의一般的인 朝鮮人學校에 비한다면 당시 民團系에 속한 40餘個 學校들은 비록 施設이나 教師는 不足하더라도 教課內容은 教育上 나은 편이었다. 이들 中에서도 京都에 있는 私立學校는 日本의 學校基準에 맞으나, 教課內容은 순 韓國의 것을 채용하고 있었다.

처음에 방관적이었던 聯合軍司令部는 1947年 10月 日本政府에게 韓人學校도 日本 文部省의 지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日本 文部省은 1948年 1月 教育令을 내려 日本教育法이 韩人學校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니 모든 어린이는 法定基準에 합당한 學校에 취학할 것과, 教師는 日本政府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되며, 日本人 校舍를 빌린 朝鮮人學校는 이곳에서 철수할 것이고, 教課內容은 學校敎育法에 따르되 모두 日本語로敎育하고 韓國語는 課外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金府煥, 1977:21).

이에 대해 在日韓國人은 모두 反對를 하고 1948年 3月 1日 三·一節 行事를 기화로 「朝鮮人敎育對策委員會」를 결성하여 4個 項의 要求條件를 發表하였다. 즉 1) 朝鮮人の 教育은 朝鮮人の 自立性에 맡길 것, 2) 日本政府는 朝鮮人敎育의 特殊性을 인정할 것, 3) 學校行政은 學父兄의 自治로 할 것, 4) 日語는 요구하는 한도로 별도로敎育할 것 등이었다(E. Wagner, 1951:70).

이러한 抗議에도 불구하고 各都·道·府·縣에서는 일제히 朝鮮人學校閉鎖令을 내렸다. 在日韓國人은 大衆運動으로 抗議하여 도처에서 시위를 하였

고, 그中 가장 큰 사건이 大阪의 神戶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阪神教育事件」이라 한다. 神戶에서는 4月 10日 神戶가 속한 兵庫縣內에 閉鎖令이 내렸고, 4月 15일까지 校舍의 明渡를 명했다. 이것으로 約 3千名의 學生이 學習를 중단하여야 했다. 4月 14日 數百名이 縣廳에 모여 知事의 面談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知事는 보이지 않았고, 美軍憲兵이 韓人 代表 2名을 체포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65명이 체포되어 抗議隊員은 일단 해산하였다. 4月 24日 5百餘名이 縣廳을 습격하고, 知事에게 강요하여 知事는 抗議隊의 요구대로 “學校閉鎖令을 철회하고 學校 規格化를 연기하며 구금자를 석방할 것”을 선언하여 이것을 文書로 확인받았다. 그러나 다음 날 聯合軍司令部는 知事의 命令이 강제에 의한 것이기에 無效를 선언하고, 兵庫縣 一帶에 戒嚴令을 선포하며 在日韓國人에 대해 일제검거에 나서 1千 6百名을 체포하고 日本共產黨員 130名을 검거하였다.

한편, 大阪에서는 4月 23日 萬餘名의 시위대가 府廳에 모여들자, 日警 4千名이 동원되어 179名을 체포하고, 데모대를 해산시켰다. 4月 26日 다시 1萬3千名이 府廳으로 모여들자 消防車를 동원하여 펌프로 물을 뿌리고 無差別亂射를 가하기도 하였다.

強壓으로 阪神教育事件이 일 단락 지어지자, 日本 文部省은 朝鮮人教育對策委員會와 3次의 교섭을 가진 후 5月 5日 兩側間に 覺書를 交換하고, 이에 준하여 日本 文部省은 “朝鮮人學校에 관한 問題에 대하여”란 구체적 조치규정을 발표했다. 이것이 의하면 1) 財團法人을 갖고 設置基準에 합치된 朝鮮人學校는 私立學校로 認可한다; 2) 日本人學校에 전학하는 朝鮮人生徒에게는 특히 편의를 제공하고 日本人生徒와 同一하게 취급한다; 3) 각地方廳은 朝鮮人學校 責任者の 意見을 심문 청취한다라는 内容이다.

한편 1次 措置에서 92個校가 폐쇄되고 2次 措置에서 350個校가 폐쇄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사건의 배후조정자가 日本共產黨이었다는 것이다. 朝連은 이와같이 日共의 앞잡이로서 전초적인 行動隊員과 같은 역할을 하여 日本人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고 阪神教育事件을 계기로 朝連은 暴力團體로 낙인찍혀 결국 解散당하게 된다(金府煥, 1977:26).

#### (朝連解散)

阪神教育事件이 있은 이후에도 朝連은 계속 民團과 충돌하고 日警과 충돌

하여 았으며, 北韓旗를 게양하는 등, 北韓으로부터의 지지를 노골화하여 갔다. 1948年 10月에 있은 5次 全國大會에서 朝連은 日本에게 投票權과 代表權을 요구하였고, 1949年 4月 阪神教育事件 一週年을 맞이하여 2萬餘名이 大阪에 집결 궐기대회를 하였다.

당시 國際政勢는 中共이 大陸을 통일하는데 반해, 日本에서는 吉田內閣이 保守化로 기울 때였다. 日本政府는 共產黨을 체압하려는 目的으로 聯合軍司令부의 양해를 얻고, 1949年 9月 8日 朝連과 民青, 千代에 있는 民團, 그리고 4個의 日人 團體에게 “團體等規正令”을 적용, 解散令을 내렸다 (李瑜煥, 1971:11).

解散당한 朝連은 소극적인 解散反對署名運動을 하고, 外形上으로는 다음에 볼 「民戰」으로 변신한다. 朝連을 지지하고 지도하던 日本共產黨은 朝連의 解散令은 포츠담宣言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항의하였고, 오히려 朝連의 反對者였던 民團이 1949年 12月 3日 日本에 반박하는 聲明을 내어 朝連의 解放은 韓民族에 대한 民族的 壓迫이며, 朝連을 犯罪視하는 것은 一般韓國人을 强盜로 여기는 것으로 人類平和에 不幸을 초래하는 쳐사라하였다 (李瑜煥, 1971:17).

朝連과 더불어 解散당한 民青의 後身이 「在日朝鮮民主愛國青年同盟」(民愛青)이다. 1950年 4月 協議會로 시작하였으나 1952年 10月 民愛青으로 改稱하였다. 民青의 尖銳分子 青年으로 결속된 民愛青은 日本共產黨과 손을 잡고 韓國戰이 격하던 時期에 日本內의 美軍 物資를 손상시키며 輸送을 방해하는 게릴라戰을 전개하였으며 韓國에서 聯合軍이 압록강에 다다르자, 더욱 北韓을 위해 테러행위를 자행하였다 (李瑜煥 1971:21).

朝連의 後身이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民戰)이다. 朝連이 해산당한 후, 「朝鮮民主統一同志會」會長인 李康勳을 中心으로 1950年 4月 「朝鮮人團體協議會」를 구성하였다. 李康勳은 民團을 주도했던 人物이기에 이 協議會는 外形上 左右가 합한 것이 된다. 韓國動亂이 발발하자, 1951年 1月 9日, 이 民戰을 결성하고 前 朝連의 맥을 이어간다. 民戰은 앞서 본 民愛青과 다음에 살펴 볼 祖防委 등을 지휘하며 계속 활동을 하여 왔다. 1953年 11月 4次 大會에서 民戰은 두 派로 분리하게 된다. 한 파는 新日共派라 불리우는 것으로 앞으로 日本共產黨과 긴밀한 關係를 갖고 共同의 敵인 三反鬪爭, 즉 反吉田·反軍費·反美的 투쟁을 전개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 파는 民族派라

불리우는 것으로 美軍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北韓共產黨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民族派가 劣勢였다(李昌洙, 1981:89).

朝連解散後, 특히 韓國戰을 계기로 組織된 것이 「祖國防衛委員會」(祖防委)이다. 이것은 특히 日本共產黨內의 自聯防과 공동전선을 폐, 美軍軍需品生產과 輸送을 방해하기 위해 美軍基地나 警察署 등에 수류탄을 던지고 工場從業員에 同盟休業을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韓國戰이 끝나자 祖防委는 改編이 된다(李昌洙, 1981:88).

朝連이 解散당할 전후에서 韓國戰이 있었던 그 사이에 民戰, 民愛青 등은 계속 民團과 충돌하고 日警과 충돌한다. 그 代表인 것만 열거하여도 이려하다. 즉 1949年 7月 民團 宮城縣本部國長이 朝連員에 피살당한 鹽釜事件, 1949年 8月 山口縣 下關市의 朝連員 2百餘名이 竹槍과 곤봉등으로 民團支部事務所나 團員 私宅 19채를 파괴한 下關事件, 1951年 神奈川縣 高座郡에서 民團員이 大會때 라를 불이다가 구타를 당한 大和町事件, 1952年 1月 兵庫縣 加古郡 高砂町에서 民團員 70名과 舊朝連員 2百名이 충돌한 高砂事件 등이 그것이다.

日本人과 충돌한 큰 사건은 셋이었다. 1952年 5月 1日 勞働日에 東京 日比谷公園에서 宮城前廣場으로 오는 데모隊와 警備警官隊가 충돌하여 宮城前廣場이 수라장이 되고, 차량 10대가 파손되었으며, 쌍방에 수십명의 부상자가 남고, 千餘名이 검거된 중 舊朝連員이 131명이 있었다. 1952年 6月 25日 大阪府 吹田市에서 吹田事件이 있었다. 民戰 祖防委隊員 千餘名이 美軍司令官을 습격하기 위해 山中에 잠복하였다가 日警과 충돌하여 113명이 검거되었다. 1952年 7月 7日 名古屋市에서 발생한 사건을 大須事件이라 한다. 大須運動場에서 蘇聯과 中共을 방문하고 귀국한 帆足計와 宮腰喜助를 환영하는 大會가 있었다. 이때 舊朝連員 千餘名이 참석하여 警備하는 警察에게 화염병을 던져 이에 맞선 警察이 발포하여 19명이 重輕傷을 입고 1명이 死亡하였고, 舊朝連員 261명, 日人 73명이 체포되었다(李渝煥 1971:36).

韓國에 休戰이 성립되면서 北韓으로부터의 세로운 지령이 있으면서 朝連의 後身인 民戰은 戰略을 바꾸고 體質을改善하여 朝總聯으로 발전한다.

## 2. 日本政府時代(1952~1964)

1951年 9月 8日, 日本은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 聯合國과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을 체결하였으며 1952年부터 日本 獨自의 路線을 발전시켜 나아간다. 日本은 政治的으로 既成秩序를 회복하려는 복고적 경향을 띠고 經濟的으로는 韓國戰에 軍需物資를 生產하여 高度成長에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다.

日本政府에게 큰 問題의 하나가 在日韓國人에 관한 것이었다. 美國은 韓國戰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日本의 再軍備를 추진하는 한편 日本의 吉田內閣과 韓國의 李承晚政府의 접근을 시도하여 在日韓國人の 問題를 포함하여 1951年 10月부터 韓日會談을 주선하였다. 韓國은 韓國戰의 와중이라 會談에 성의를 보이지 않더니 1953年 會談이 만기가 되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在日韓國人の 問題는 전과 다름없이 남게 되었다(R. Mitchell, 1969:119).

### (韓國의 平和線)

韓國戰이 한창일 때, 1952年 1月 18日, 韓國政府는 韓國 海上 60마일 이내를 領內로 하는 李承晚線, 즉 平和線을 선포했다. 이것은 韓國의 防禦와 國民의 安全을 위해 취하여진 조치였다. 韓國은 國防의 目的에서 平和線이 필요하였지만 이것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日本의 漁民들이었다.

韓國의 平和線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日本은 漁民들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런 漁民들은 수없이 韓國海軍에게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日本 漁民의 석방 등을 위하여 韓國과 日本은 1953年 3차나 會議를 가졌으나 모두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1957년까지 兩國에는 아무 協商이나 關係가 없었다. 구금된 日本漁民과 交換하기 위한 條件으로 日本은 在日韓國人을 생각하고 1947年에 있었던 外人登錄을 철저히 수행하여 위반자를 검거하는 한편 1951年に 제정한 出入國管理法을 더욱 심하게 적용했으며 조금이라도 위반이 되면 가차없이 大村收容所에 감금하였다. 말하자면 大村收容所에 감금된 在日韓國人と 韓國에 구금된 日本漁民을 교환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在日韓國인이 받는 압박과 고충은 극심한 것이었다.

이런 問題와 더불어 在日韓國人の 여러 현안 문제들을 풀기 위해 民團團

長金載華는 1952년 서울을 방문하여 몇 개 항의 의견을 韓國政府에 제출하였다. 이를테면 民團을 통해 韓國과 日本이 交易을 할 것, 韓國銀行의 東京支店을 설치하여 在日韓國人 企業家와 관련을 가질 것, 韓日會談에 교포대표를 參席케 할 것, 在日韓國人 6名을 韓國國會에 옵저버로 보낼 수 있게 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提議에 대하여 韓國政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對日關係도 경직화된다. 이에 따라 在日韓國人 社會에서는 韓國의 棄民說이 나오게 된다(李昌洙, 1981:97).

#### (南日呼訴文)

韓國의 對日强硬政策과 在日韓國人에 대한 棄民策은 北韓에게 日本進出의機會를 준 것이었으니, 北韓 外相 南日은 1954年 8月 30日 日本과 在日韓國人에게 呼訴文을 보낸다. 이것은 北韓이 在外公民인 在日韓國人에 대한一切의 責任을 질 것이라는 것과 日本政府는 朝鮮民族의 權益을 존중하여 달라는 것이다(李昌洙, 1981:95).

南日의 呼訴文은 여러가지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當時 日本의 鳩山內閣은 共產陣營과의 交易을 바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意思의 表示이며, 당시 朝連의 後身인 「民戰」은 日共을 지지하려는 派와 北韓을 지지하려는 派로 나뉘어 紛爭이 있었기에 이를 수습하여 「民戰」을 北韓 労動黨에 執行을 명하는 것이 되며, 또 당시 在日韓國人은 75%가 「民戰」에 속하였기 때문에 在日韓國人 전부를 親北韓 性向으로 전환시키려는 内心이 있었다.

南日聲明은 뒤에 北送問題까지 연결되지만 가장 먼저 反應을 보인 곳이 역시 在日韓國人 社會였다. 民團과 朝連을 초월하여 在外公民으로서 단합하려는 목적에서 左右 兩陣營의 代表들이 1955年 6月 24日 東京의 國鐵勞働會議館에 모여 「祖國統一促進協議會」(統協)를 결성하고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統協은 朝總聯이 생기면서 그곳에서마저 危險視하는 團體가 되어 결국有名無實한 團體가 되고 말았다(李瑜煥, 1971:169).

日本에서는 太平洋使節團의 番中이 北韓을 방문하고 난 뒤 民間中心으로 수십 개의 北韓 日本間의 交易協會가 생겼으며, 1955年에는 北韓의 國際貿易振興協會長과 日本의 蘇日貿易協會長間に 交易協定이 체결되고, 이어 北韓의 人民大會副會長과 日本의 社會黨 衆議員 사이에서 國交正常化, 交易促進, 自由交易, 그리고 漁業境界設定을 내용으로 하는 코뮤니케가 발표되었다(李昌洙, 1981:98).

## (朝總聯)

南日聲明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民戰」이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民戰」은 親日共派와 民族派로 나뉘어 論爭과 對立을 거듭하여 왔다. 親日共派는 朴恩哲로 代表되는 主流派라 하고, 民族派는 韓德銖로 대표되는 反主流派라 한다. 결국 韓德銖가 승리하는 것이니 韓德銖派를 先黨派라 하고 反對派를 後黨派라 하기도 한다.

1955年 5月 26日, 東京 浅草公民館에서 全國大會를 開催하여 이곳에서 韓德銖의 論文이 발표되고, 이어 民戰과 祖防委를 해산하며 새로이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朝總聯)를 결성하였다. 韓德銖 論文의 요지는 이러하였다. 즉, 日本共產黨은 日本에서 權力を 획득하려는 集團이기 때문에 韓國人이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海外公民의 관심은 祖國에 있으며 우리의 政治的 目的是 祖國의 平和統一과 在日韓國人の 基本權보호에 있다. 朝總聯은 日本共產黨에서 분리될 것이며 朝總聯의 行動방침은 日本과 北韓의 友愛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李昌洙, 1981:89).

새로 組織된 朝總聯은 이어 下部組織의 정비를 서둘러 49個의 地方本部, 419個의 區部, 2,700個의 支部, 그리고 246個의 團을 두었다. 1974年 集計에 의하면 朝總聯의 團員이 25萬名이고, 봉급을 받고 근무하는 專屬職員이 5,600명이라 한다.

朝總聯은 이에 완전히 方向을 전환하여 日共과 단절하고 北韓과 밀착하게 된다. 朝總聯은 北韓을 日本에 선진할 목적으로 『朝鮮通信』이란 新聞을 발행하고, 영문으로 된 週間誌를 발행했으며 北韓에서 출판되는 書籍·雜誌·新聞들을 보급하였다. 한편 「中央教育研究所」를 설치하여 北韓에서 사용하는 教材를 朝總聯學校에 사용할 수 있게 개편하는 사업을 하였고 北韓에서는 教育費의 명목으로 막대한 資金을 朝總聯에게 보냈으니 1957年 첫해만도 2億2千餘萬圓을 지불하였다(李昌洙, 1981:99).

## (北送問題)

朝總聯의 一大事業은 北送을 원하는 在日韓國人을 北送하는 것이다. 北韓의 意思를 안 朝總聯은 1958年 8月 15日 解放 15周年記念大會에서 北送提議를 한 것이다. 말하자면 日本과 北韓은 즉시 親交關係를 수립할 것, 大村收容所에 감금된 사람들은 원하는 곳(北韓)으로 보낼 것, 이것을 위해 日本

은 彙還計劃을 즉각 세울 것, 그리고 北赤代表가 日本에 入國할 수 있게 조치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決議와 함께 朝總聯은 「中央歸國對策委員會」를 설치하여 組織을 총동원했으며, 內外에 宣傳을 하고 左翼系 日本人 團體와 긴밀한 연락을 갖고 「在日朝鮮人歸國協力會」를 발족시켰다. 한편, 日本內의 모든 言論機關을 동원하여 北韓의 모습과 歸國의 必要性 등을 선전하였다.

이것과 때를 같이하여 北韓에서는 1958年 9月 8日, 建國 10周年記念大會에서 金日成은 归還同胞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라 하였으며, 수일 후 副首相 金一이 記者會見에서 归還同胞를 위한 구체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北韓은 戰後復舊事業에 많은 労動力이 必要하여 특히 日本에서 技術을 가진 노동자의 귀환을 기대했으니 表面上으로는 人道主義를 표방하여 祖國에 귀환하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것을 機會로 北韓의 발전상을 日本에 선전하여 北韓을 國際社會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였다. 在日韓國人에 대하여는 北韓이 稅金을 내지 않는 地上天國이라 선전하고 北韓에 귀환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衣食住를 해결하여 주며, 職場을 주고, 兒童들은 즉시 취학케 하며, 定着金으로 成人은 1人當 2萬원, 14세 이하의 兒童에게는 1萬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모든 宣傳과 日人協力者를 배수하는 등 北韓이 소비한 당시의 비용이 2兆圓에 달하였다 한다(李昌洙, 1981:105).

당시 日本에는 北韓을 訪問한 言論人, 政治人, 實業人們이 많았기에 北韓의 立場에 동정적이었으며, 특히 日鮮協會와 같이 日本政界와 議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團體가 北送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左翼系 人事가 아니더라도 日本人 世論은 归國하려는 者는 南이고 北이고 관계없이 보내야 된다는 것 이었고, 日本政府는 居住地選定自由의 原則을 표방하고 北送을 지지하였다.

北韓 및 日本의 赤十字社 代表들은 1959年 4月 제네바에서 北送을 위한 구체적인 方案을 모색하는 會談을 갖고 各己 本國에서 批准을 얻은 후 1959年 8月 13日, 兩赤十字社 代表는 印度의 캘커타에서 協定에 調印을 하니 이 것을 「캘커타 協定」이라 한다.

韓國政府 역시 北送에 대해 방관할 수 없었다. 韓國은 日本政府에 대해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이기 때문에 모든 會談은 韓國과 행할 것이며 北韓과 對座하는 것은 北韓을 승인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國際法에 위반이라는 것과 北送은 人道的이 아니라 생지속에 보내는 것이기에 非人道

的이라 하였다. 심지어 위협적인 어귀로, 만일 北送이 進行된다면 北送船을 공격하겠다 하였으며 한편 美國에 中介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능동적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日本에 있는 民團이었다. 民團은 1959年 2月 2日 民團내에 「北韓送還反對鬭爭委員會」를 설치하고 民團의 組織力を 총동원하여 在日韓國人과 日本의 各機關·團體·新聞 등에 극력 호소하였다. 그 내용은 北韓이 결코 地上樂園이 아니라는 것, 北韓에는 日常生活必需品이 궁핍하다는 經濟的 事情을 알리는 것,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自由가 박탈당하고 行動의 구속이 심하며 強制職場配置가 이루어진다는 것 등이었다. 民團은 이러한 啓蒙만이 아니라 自動車抗議鬭爭, 阻止鬭爭, 斷食鬭爭, 決起大會, 列車阻止鬭爭, 그리고 최후로는 出港地 新潟에서의 實力鬭爭까지 하였으나 결국 北送船은 떠났다. 정히 화난 民團은 韓國政府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1959年 10月 14日 975名의 歸還者를 실은 萬景峰號는 新潟港을 떠났다. 첫 해인 1959年에는 2,942名이 떠났고, 1960年에는 49,036名, 그리고 1961年에는 22,801名이 北送되었으나, 1962年부터는 갑자기 北送者가 줄어 3,497명이 北送되었고 1963年에는 2,567名이었으며 1976年까지 계속되었으나 2千名이 넘지 않았고 1971年부터는 1千名이 못되는 사람들이 간 것이다. 이렇게 1960年과 1961년 2年을 피크로 北送者가 급격히 감소된 것은 北韓에 간 사람으로부터 北韓의 實情이 어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李昌洙, 1981:105).

#### (朝總聯과 民團)

北送의 熱氣를 몰아 朝總聯은 1960年 1月 15日 全國組織部長會議를 갖고 「平和的 統一事業」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것은 1959年 11月 18日에 있었던 南日의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관한 報告演說」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 내용은 韓國에서 美國을 철수시키고 總選舉를 실시하자는 것이고, 이 中 日本에서 구체화된 것은 民團을 赤化시키고 日本에 파견된 韓國의 言論人·文化人·政治人 등을 포섭하는 것이었다.

당시 民團은 内部의으로 극히 不安定한 때였다. 韓國內에서 新國家保安法이 國會를 통과하자, 1958年 2月 民團 一部에서는 이에 反對하는 意思를 표시하였고 동시에 停權處分을 당하였다. 이어 民團의 野勢力은 계속 柳泰夏大使追放運動, 曹奉岩救命署名運動, 趙鏞壽(民族日報事件)救命運動을 전개

하여 民團은 三分五裂의 지경이었으며, 北送問題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력을 다한 民團은 民團史上 최초이며 최후로 本國政府에 대하여 僥胞政策不信任을 宣言하였던 것이다(李瑜煥, 1971:111).

서울에서 4.19가 발발하여 새로운 民主化의 운동이 전개되는 여운을 타고 民團은 새로운 民主黨에 호응하는 意味의 「民團 第三宣言」을 발표하고, 統一 問題研究委員會를 조직하고 朝總聯과 접촉을 시작하였다. 朝總聯은 統一 方案으로 國民들에 의한 最高人民會議를 주창하고, 韓國에서의 美軍 철수와 總選舉를 주장하였다. 한편 朝總聯은 民團만이 아니라 日本人까지 동원하여 統一을 위한 간담회, 청문회, 토론회 등을 계속 개최하여 韓半島의 통일은 오히려 日本에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1961年 서울서는 4.19 1周年을 맞아 10萬 群衆이 統一을 염원하는 大會를 열었다는 소식에 이어 朝總聯의 學生과 民團의 學生들이 5月 17日 會議를 하고, 다시 5百餘名이 東京에 모여 韓國의 學生과 北韓의 學生들이 直接 會同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 주고 南北韓 學生交換을 위해 在日韓國人學生들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5.16革命이 발생하였고 이어 反共을 宣言하였다. 本國情勢에 민감한 民團은 權逸執行部를 출범시켰고 權逸團長은 學生運動을 단호히 거부하며 「韓青」과 「韓學同」을 탄압하였다. 「韓青」이란 「在日韓國青年同盟」이고 「韓學同」은 「在日韓國學生同盟」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50年 「在日朝鮮人留學生同盟」에서 분리하여 독립한 것으로 韓國戰 때는 韓國에 義勇軍을 파견하였다.

당시 「韓青」과 「韓學同」은 이미 在日韓國人 二世 내지 三世가 주동을 하고 있었다. 權逸執行部의 강한 反共政策에 不滿을 가진 統一朝鮮新聞의 元 心昌과 李榮根 등을 中心으로 民團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韓國民族自主統一同盟」(韓民自統)을 조직하였다.

韓國의 軍事政權은 李政權과 달리 신속하고 적극적인 對日政策을 취하였다. 韓國은 崔信德을 단장으로 하는 親善使節團을 日本에 파견하고, 이어 日本에 在日韓國人の 教育을 진단하는 教育使節團을 파견하였다. 文教部는 이어 日本에 있는 在日韓國人教師를 훈련시키기 위해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8月에 30名을 일차로 한국에 초빙하여 韓國의 歷史와 文化를 교육시키고 특히 새 政府의 意志를 확인시켰다. 이 때부터 韓國에서도 在日韓國人の

敎育을 위한 援助費를 보냈다. 한편 韓國은 10月에 在日韓國人 實業人을 서울로 초청하여 朴將軍을 방문케 하고 이 자리에서 在日韓國人 實業人은 韓國의 經濟建設에 그리고 韓國政府는 在日韓國人의 權益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R. Mitchell, 1967:152).

이러한 韓國의 對日 政策에 대하여 朝總聯은 朴政權을 팽소라 규정하고 日本에 대하여 악선전을 하며 日本 社會黨과 日本 共產黨의 지원을 받고 反韓聯모를 전개한다. 그러나 1963年부터 朝總聯은 이미 發展의 한계점에 이르렀으니 앞서 본 北送問題는 이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 (韓日會談)

韓日會談은 1951年 10月에 있었던 豫備會談부터 시작하여 1952年에 本會議가 있었고, 1953年에 二次會談, 그리고 1953年에 三次會談가 있었으나, 매번 결과는 같은 것이었다. 즉 會談의 內容은 韓日間의 基本關係, 漁業問題, 船舶返還問題, 在日韓國人の 法的地位問題, 그리고 財產請求權問題였다.

會談이 결렬되는 것은 財產請求權問題와 李在寅問題였다. 그러나 三次會談에서는 1953年 10月 15日, 日本主席代表 久保田貫一郎의 이른바 久保田發言으로 會談은 再開키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의 發言에 따르면 日本이 韓國에 鐵道나 港灣 등을 건설하였으며, 農地를 造成하는 데만 當時 2千萬圓이 들었으니 이것을 韓國側의 請求權과 相殺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韓國에 日本이 가지 않았으면 中國이나 소련이 침입하였을 것이며, 日本은 36年間 資本主義 經濟機構에서 韓國을 平等히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久保田發言으로 단절된 會議는 5年後인 1958年에야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58年 4月에 第4代會談이 열렸으나 역시 결렬되고 1960年 10月 張勉內閣에 의한 第5次會談도 결렬되었으며, 1961年 10月 20日부터 1964年 4月 6日까지 계속되는 朴政權에 의한 第6次會談에서 결국 매듭을 짓는다. 韓國의 代表 金鍾泌과 日本代表 大平 사이에서 이른바 「金·大平メモ」가 가장 난제이던 財產請求權問題를 타결한다. 즉 日本은 韓國에 無償供與로서 3億弗을 지불하되 物資와 用役으로 하고 10年間에 걸쳐 지불한다. 債務殘高 4千 5百 72萬 9千 3百 98弗은 3億弗 내에서 相殺한다. 日本海外經濟協力基金에서 2億弗의 物資와 用役을 10年間에 걸쳐 지불한다. 輸出入銀行에서 1億弗 이상의 借款을 제공한다는 등의 것이었다. 1964年 12月 3日 第7次會談이 개최되고, 1965年 2月 日本의 權名 外相이 韓國을 방문하여 韓日基本條約에 假

調印을 하였으며, 6月 2日 東京에서 양국 代表가 本調印을 행 함으로써 해방 후 20年만에 韓日間의 條約이 체결된 것이다.

韓日條約에 대하여 가장 큰 不滿을 갖고 反對한 것은 朝總聯이다. 朝總聯은 南韓만의 단독 수교는 韓半島의 分斷을 고정시켜 統一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지지하는 日本共產黨은, 韩日條約은 日本이 韓國問題와 관련을 맷음으로써 北韓에 대한 軍事的 위협이 되고, 日本의 經濟的 進出은 經濟的 침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李昌洙, 1981:116).

民團도 韩日條約에 큰 不滿을 가졌다. 韩日會談 第6次會談이 마무리지어지는 1964年 2月, 民團員들은 大阪 中之島公園에 모여 「法的地位要求貫徹民衆大會」를 개최하여 在日韓國人の 法的地位問題가 극히不安한 상태에서 韩日條約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 反對를 하였다. 특히 韩日會談에서 韩國代表團의 저자세에 분개하여 民團은 對日屈服反對를 表明하고 陳情團을 결성하여 韩國代表團에 면담을 청하자, 駐日代表部가 이것을 거절하였다. 분개한 民團은 대규모 集會를 열어 韩國代表團의 日本退去를 요구하고 陳情團을 本國政府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결국 在日韓國人の 의사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韩日條約은 체결되었다.

朝總聯이 사력을 다하여 韩日條約의 체결을 반대한 것은 마치 民團이 北送을 반대한 것과 유사하다. 朝總聯은 1964年 代表團을 조직하여 日本 外務省에 항의하고 日本 社會에 반대를 호소하는 한편, 863명의 朝總聯 간부들을 249個 市에 파견하여 在日韓國人們에 설득작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日本各地方에서 데모를 벌여, 가장 극심했던時期가 1964年 10月에서 12月 사이로 이때 朝總聯이 행한 데모가 2千 9百個所이며 동원된 인원이 2百萬名이고 체포된 사람만도 889名이 되었다. 데모가 극심했던 10月은 日本에서 1960年 美日安保條約 당시에 있었던 日本 最大的 데모에 버금가는 데모를 행하였다. 1965年 3月에는 韩國代表團이 머물고 있는 호텔과 駐日代表部의 건물 앞에서 극렬한 데모를 전개하였다.

### 3. 韩日條約以後

#### (民 團)

韓日條約으로써 在日韓國人の 法的地位問題는 전적으로 日本政府의 손에

맡겨진 셈이다. 미흡하고 不滿스러웠으나 韓日條約의 假調印이 발표되자 民團에서는 산하 團體의 이탈과 단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組織整備強化에 관한 決議文」을 발표하였다.

韓日條約이 체결되자, 民團은 民團運動 2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民團 第4宣言」을 발표한다. 이것은 1) 在日韓國人の 法的 地位에 관한 日本政府의 성의있는 처우; 2) 納稅와 같이 政治 經濟·社會면에서 在日韓國人을 日人과 同等하게 대우할 것; 3) 韓日 兩國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民團이 될 것; 4) 在日韓國人の 교육은 긍지를 갖는 教育이 될 것; 5) 民團이 좀 더 내실화를 기할 것; 6) 民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7) 韓國의 統一은 UN案에 따를 것; 그리고 8) 韓國의 經濟建設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이었다(民團本部, 1977:91).

民團도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朝總聯 못지 않게 部署를 갖추고 其下團體로도 韓青, 韓學同 이외에도 大韓民國在鄉軍人會日本支部, 婦人會, 在日韓國人商工會聯合會등이 있다. 在鄉軍人會는 韓國戰時 韓國을 위해 參戰한 용사들이다. 한편 韓國政府는 民團의 강화와 在日韓國人の 教育을 위해 海外僑胞後援資金을 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團이 朝總聯과 같이 強하지 못한 것은 自由民主主義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共產主義에서와 같은 억압과 구속을 싫어하는 本性이 있으며 한편 民團에는 카리스마의in 指導者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韓日條約으로 인하여 民團은 朝總聯보다 훨씬 有利한 立場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民團의 진로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民團의 시련의 하나가 朝鮮大學의 認可이다 美日講和條約 이후 韓國인이 日本에서 外國人の 地位가 되자 이에 맞추어 朝總聯은 學校를 정비하고 府·縣의 知事로부터 認可를 맡았으며, 인가받은 學校가 161個校가 되었다. 朝總聯은 4年制 大學을 文部省 規定에 맞게 한 다음, 1967年 東京都 美濃部知事에게 認可를 신청하였다. 이 知事は 左翼系 人事로 朝總聯에 同情的이었다. 1967年 9月, 民團團長은 知事에 朝大認可를 내주지 않도록 항의하는 한편, 朝大認可阻止鬭爭委員會를 조직하고 全國的 규모의 시위를 수차 거행하였다. 그러나 朝鮮大學은 결국 인가를 얻었던 것이다.

또한 民團에게 큰 충격을 준 事件이 1968年 11月 13日 名古屋市에서 발생하였다. 同市 愛知縣地方本部 會議室에서 地方委員會가 개최되어 이곳에 참

석중인 愛知縣團長 金龍煥이 暴力輩에 의해 日本刀에 찔려 絶命하고 말았다. 이것은 백주에 團長이 테리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殉職事件이었기에 全民團員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民團本部, 1977:16).

在日韓國人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의 하나가 外人登録法이고, 다음이 出入國管理法이다. 法案이 제의되자 1969年 6月 2日 東京의 文京公會堂에 5千餘名이 모여 反對決議를 하고 請願文, 抗議文 등을 首相, 兩議院, 그리고 各政黨에 발송하였다. 이어 大阪에서는 1萬 5千餘名이 入管法反對 市街行進을 하였으며, 6月 19일에는 中國人까지를 포함하는 韓中共同蹶起大會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法案은 통과되었다(民團本部, 1977:97).

#### (萬國博覽會)

1970年 3月 15일부터 9月 13일까지 6個月間 大阪府 吹田市의 萬博會場에서 77個國이 참석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萬國博覽會가 열렸으며, 이곳에 「韓國館」이 건립되었다. 韓國館은 敷地面積 4,650m<sup>2</sup>에 建築面積 2,350m<sup>2</sup>, 建物높이 30m의 철근콘크리트로 된 4層 建物이 있다. 建設費 百萬弗을 포함하여 總工事費가 2百 55萬弗이 소요되었다. 民團은 大阪市에 모여 萬國博覽會 在日韓國人後援會를 조직하여 本國에서 參觀團을 초청하는 問題, 朝總聯 防害工作에 대한 對策, 그리고 기금을 모으는 問題를 토의한 후, 50萬弗(1億8千 5百萬圓)을 모금하였다(民團本部, 1977:364).

民團에게는 흥겨운 行事였으나 朝總聯은 크나큰 손실이었기에 朝總聯萬博對策委員會를 조직하여 民團에 방해공작을 하며, 특히 사람들의 납치공작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民團은 大阪地區萬博保安委員講習會를 갖고 特別요원 3百名을 훈련시켰다. 이어 本國의 家族을 萬博을 기회로 초청키로 하여 本國家族萬博參觀團을 구성하고 초빙하였다.

1970年 3月 13日 開館式에 李厚洛 駐日大使를 위시하여 千餘名의 人事들이 참석하였고, 太極旗가 계양되고 愛國歌가 연주되었다. 5月 18일은 “大韓民國의 날”이었다. 丁一權國務總理가 韓國代表團을 인솔하고, 이곳에 참석하여 리셉션을 베풀었으나 4百餘名의 外國 및 日本의各界人士가 이곳에 참석하였다. 7月 14일에는 日本의 天皇과 皇后 内外가 韓國館을 방문하였고 答禮로 丁總理一行이 天皇接見, 首相官邸訪問을 하였다.

韓國에서 이 機會에 日本을 방문한 사람이 9,710名이고, 商工人이 3,713名이었으며, 政府要人이 1,500名이었다. 韓國館에 入場한 人員이 624萬餘名,

賣店과 食堂에서의 賣上이 5億 7千 6百 25萬餘圓이었다. 韓國館은 韓國人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데, 그리고 새로운 韓國을 만방에 소개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 (維新民團)

그간 朝總聯의 思想的 統制와 組織的 從屬에 심증을 느낀 사람들 중 民團으로 전향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한편 여지껏 많은 選舉비용을 낭비하면서 당선이 된 團長은 體制上 強力한 權限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러한 民團을 보다 韓國에 밀착시키기 위해 駐日公使가 民團團長의 선거에 간섭하여 李禧元이 1971年 團長에 당선되자 一部에서는 그를 官權團長이라 하여 반대하고 民團自主守護委員會를 조직하였다.

民團本部는 官權團長을 옹립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地方本部 事務局長을 中央서 任命하는 民團改編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地方本部는 모두 中央의 案을 반대하였는데 中央과 同地域에 있는 東京本部에서 즉각적인 反응을 보였다. 民團本部는 새로운 統制案에 의하여 分裂의 위기에 직면하자 미리 응모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른바 錄音問題說明民衆大會를 계기로 東京本部의 團長과 議長을 停權處分하고 東京本部를 中央本部의 直轄로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을 흔히 「東京本部事件」이라 한다(李瑜煥, 1971: 125).

東京本部 直轄宣言이 있은 것이 7月 5일이었고, 8月 2日 東京本部 事務室이 있는 舍屋을 中央本部가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韓青과 韓學同의 青年들이 反對를 하고 마침내 20餘名의 重輕傷者를 내는 충돌이 있었으니 이것을 「八二事件」이라 한다. 일단 事件은 수습되었으나 이듬해인 1972年 4月 18日 韓青과 韓學同의 70餘名이 民團中央本部에 난입하여 3部 機關長을 갑금하고 全國大會의 소집을 요구하는 소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 反作用으로 一部 團員들은 東京文京區에서 暴力行爲를 규탄하는 「韓青執行部亂動糾彈大會」를 여는 한편 中央本部에 組織正常化를 촉구하는 「中央本部에의 要請文」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묶인 채 民團은 外部로부터의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된다(民團本部, 1977:105).

1972年 9月 10日 讀賣新聞에서 발행하는 『週刊讀賣』에 韓國을 비방하는 이른바 「週刊讀賣筆禍事件」이 발생한다. 同社 論說委員顧問인 高木健夫는 特輯號 卷頭論文에서 “南의 大韓民國이란 나라는 美帝國主義의 아시아에서의 共

產圈封鎖의 道具이고 그 手足으로 使用되며…… 駐韓美軍은 韓國人民을 학살하는 蟻行을 자행하고…… 北韓이 南半部를 赤化할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朝鮮人民들의 문제이지 外國이 內政干涉할 것이 아니라”는 등의 北韓을 찬양하고 韓國을 비방하는 内容이 있다.

當時 北韓은 日本의 言論人을 초대하여 平壤을 방문케 하고 親北韓派로 만든 것이었다. 筆禍事件에 대해 韓國은 10月 8日 讀賣新聞 서울支局을 폐쇄하고 特派員을 퇴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日本에서는 讀賣新聞 不買運動을 전개하는 한편, 특히 大阪民團本部에서는 80名으로 구성된 代表團을 大阪本社에 보내 市販中인 週刊讀賣를 즉각 회수하고, 韓國의 政府와 國民에게 謝罪하며 高木健夫를 즉각 해임·追放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13日字 新聞에 사죄문이 실렸으나 그것이 民團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弱體文이었고, 특히 高木에 대한 처우가 없어 民團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9月 19日 婦人會 주최로 5百餘名이 모여 규탄대회를 가졌고 다시 讀賣新聞社에再次 앞서의 것을 요구하자 日本機動隊가 출동하여 5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25日 2萬餘名이 領事館을 하였으며 급기야 讀賣社는 30日字로 週刊讀賣一面에 크게 謝罪文을 내어 民團의 모든 요구 조건을 시행하였다(大阪民團, 1980:396).

1973年 8月 8日 엄청난 事件이 發生하였다. 東京의 호텔 그랜드파레스에 투숙중이던 國會議員 金大中이 5명의 男子에 납치되어 行方不明이 되었으며 5日後인 13日 서울의 自宅에 있음이 밝혀졌다. 當時 金大中은 日本에서 反政府的 發言을 하면서 日本에서의 支持勢力を 규합하고 있었다.

이 事件으로 인하여 韓日關係가 소원하여지고, 日本의 言論은 反韓的 자세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된다. 本國內에서는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를 거부하고 朝總聯은 새로운 民團 침투의 구실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民團 内部에서는 金大中을 지지하는 「韓民統」이 民團에서 분리되어 組織된다(民團本部, 1977:112).

### (文世光事件)

1974年 8月 15日, 光復節 式場인 國立劇場에서 在日韓國人 青年 文世光이 朴大統領과 陸女史를 저격하여 朴大統領은 위기를 모면하고, 陸女史는 살해되는 事件이 발생하였다. 日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文世光은 大阪의 在

日韓國人 二世로 住吉區에 있는 成器商業高校를 中退하고 韓青生野區支部盟員으로 활약하였으며, 民團自主守護委員會 事務局에서 활약하던 중 朝總聯生野西支部 政治部長 金龍浩에게 포섭되어 特別 훈련을 받고 韓國에 잠입하여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民團에서는 조속히 千里會館에서 故陸英修女史追悼式을 갖는 한편, 文世光의 居住地에 속하는 民團生野北支部 事務室에 崔翼龍 支團長을 本部長으로 하는 「朴大統領狙擊事件緊急對策分室」을 설치하여 “殺人鬼金日成集團을 打倒” “非人道的인 朝總聯粉碎” 등을 기입한 立看板을 生野區內에 數百個 세워 놓았다. 이것은 세운지 3時間 사이에 63개가 파손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2명이 立看板을 부수는 현장을 목격한 民團青年은 야단을 치고 뒤를 따른 즉 朝總聯 生野西支部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朝總聯 青年들이 다가와 이들을 폭행하니 洪性仁 青年部長 등 수십 명이 결사대가 되어 朝總聯 生野西支部 사무실을 공격, 기물을 파손하자 朝總聯團員들이 모두 도주하고 말았다. 이로서 朝總聯 西支部는 결국 장소를 옮기고 말았다. 이 이외에도 2萬餘名이 扇町公園에 모여 규탄대회를 하고 가두행진을 하다가 朝總聯과 난투극을 벌여 결국 朝總聯이 도주하고 말았다(大阪民團, 1980:420).

韓國政府는 文世光事件을 계기로 民團에 대한 적극적인 政策을 펴기로 하여 民團員 全員에게 50時間의 民族教育을 실시하여 思想的 武裝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民團의 青少年에 많은 장학금을 지불하여 훈련을 시키는 동시에 韓國에 留學케 하여 후일 民團의 간부가 되게 長期計劃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적극체의 하나가 母國訪問團, 名節省墓團의 韓國訪問이며 이것이 朝總聯 사람까지 확대하여 조건없이 절대 안심하고 省墓를 하고 日本으로 귀국하여 서도 절대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획기적 정책을 취하게 된다.

朝總聯이 동요되는 것은 이러한 省墓團이 생기기 이전의 일이다. 1972年 朝總聯에서는 第一副議長인 金炳植을 공금횡령사기혐의로 숙청하는 事件이 발생한다. 이것은 朝總聯의 內紛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韓德鉢의 絶對的權威가 도전당한 것이 된다. 특히, 朝總聯에의 理論的 공헌이 지대하던 知識人們, 예컨대, 金達壽, 朴慶植, 姜在彥 등 이른바 三千里雜誌를 이끌어오던 사람들이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北韓의 絶對的이고 無條件的 忠誠을 비판하고 朝總聯에서 이탈하여 이들이 주동이 되어 「朝民聯」을 조직하였다. 1975年 9月, 平壤에서 개최된 北韓勞動黨 創立 30週年慶祝會에 참석한 韓德鉢는 자

신이 오류를 범하여 朝總聯이 弱化되었음을 시인하였다(李昌洙, 1981:122).

## 結論

民團과 朝總聯은 韓國과 北韓을 代表하는 日本內의 政治集團이다. 民團의 경우, 韓國의 政策에 따라 在日韓國人에 적절한 施策을 강구하여 가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在日韓國人의 註적과 旅券業務까지를 담당하여 大韓民國 行政體系의 연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간다.

이러한 民團의 韓國과의 밀착성에도 불구하고 民團은 역시 在日韓國人의 社會라는 특수한 對象을 다루며 日本 社會라는 특수 條件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특수성에서 民團은 韓國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것이니 예컨대 韓日條約에 대한 民團과 韓國政府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바 民團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在日韓國人의 法的 地位 問題였고 韓國政府의 그것은 經濟問題였다.

民團의 특수성은 무엇보다 朝總聯과의 대치에 있다. 韓國과 北韓은 對立을 하되 休戰線을 사이에 놓고 있기에 직접 可視的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民團과 朝總聯은 비록 非武裝的 對立이지만, 混在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없고 몸과 몸을 맞대는 對立과 투쟁이 있다. 최초 解放 이후 朝連과 民團이 조직되면서 朝連과 民團은 수 차례의 流血鬭爭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民團과 朝總聯의 對立은 1950年, 그리고 1960年代 前半까지는 朝總聯이 유리한 입장에서 사건들을 주도하였고, 民團은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年代 後半부터 民團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1980年代는 솟적으로나 質的으로나 朝總聯보다 우세한立場에서 在日韓國人の 問題를 주도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民團은 朝總聯의 存在를 인식하고 또 朝總聯은 民團을 인식하여 그 組織이 유사하게 되었고 宣傳方法과 事業內容들이 유사하며 意思表現의 方法도 유사하여졌다. 또 무엇보다도, 民團과 朝總聯의 頂상의 간부들은 그 나름대로 民團과 朝總聯의 소속감과 正體性이 分明하지만, 실제로 在日韓國人の 大衆들은兩方을 모두 지지하는 態度를 취하며 또 民團과 朝總聯의 對立이 격화할수록 大衆들은 政治를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여져 民團이나 朝總聯을 모두 소원시하는 層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在日韓國人은 民團에 속하건 朝總聯에 속하건 日本社會內에서 生活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비록 日本政府로부터 差別對遇를 받고, 日本人의 遍見 속에서 不利한 生活을 영위한다 하여도 日本社會에서 30餘年을 생활하여 왔고, 특히 二世·三世가 在日韓國人 社會의 多數集團이 되면서 日本經濟成長의 혜택을 받았으며, 日本的 民主主義에 젖었으며 日本式 價值觀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解放後 30餘年 사이에 大韓民國에 있는 韓國人の 경향, 그리고 北韓에 있는 韓國人の 경향과는 다른 경향을 하여 왔기에 同一問題에 대한 감각이 다른 것이다.

在日韓國人에게도 가장 큰 염원은 祖國의 統一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의 祖國의 統一은 이들이 갖는 하나의 神話이지 현실문제는 아니다. 이를테면 統一된 祖國에나 歸國하겠다는 在日生活의 정당성으로, 日本에서 어려운 생활을 극기하는 방패로서, 하나의 理想으로서의 祖國統一이지, 그 方法과 過程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韓國에 있는 韓國人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意味에서 在日韓國人은 별도의 民族的 集團(ethnic group)이다. 비록 이들이 祖國統一이니 經濟發展이니 하여도 그 內容은 韓國에 있는 韓國人과 다른 것이다. 이들이 그렇다고 하여 日本人은 아니다. 韓國語를 몰라도 韓國人이며 韓國의 歷史를 몰라도 韓國人이다. 즉 在日韓國인이 바로 그들인 것이다.

#### <參 考 文 獻>

高峻石

1974 :『戰後朝日關係史』, 東京, 田畠書店.

金府煥

1977 :『在日韓國人社會小史』, 大阪, 共同出版社.

金一勉

1973 :『朴烈』, 東京, 合同出版.

1975 :『日本人と朝鮮人』, 東京, 三一書店.

李瑜煥

1971 :『在日韓國人 60萬一民團・朝總連の分裂史と動向』, 東京, 洋文社.

1980 :『日本の中の三十八度線一民團・朝總連の歴史と現実』, 東京, 洋文社.

田 駿

1976 :『朝總連一その最近の活動』, 東京, 實業の世界社.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 1977 :『民團 30年史』, 東京, 民團 30年史編纂委員會.  
在日本大韓民國大阪府地方本部
- 1980 :『民團 大阪 30年史』, 大阪, 民團大阪府地方本部.  
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 1979 :『在日朝鮮人の基本的人權』, 東京, 二月社.  
統一朝鮮新聞特輯班
- 1973 :『金炳植事件—その眞相と背景』, 東京, 統一朝鮮新聞社.  
日韓關係を記録する會
- 1976 :『日韓資料, 日韓關係 I. 政治經濟 拷問の實態』, 東京, 現代史出版會.  
東大洪共闘編
- 1977 :『告發, 入管體制』, 東京, 亞紀書房.  
青地農, 和田春樹
- 1977 :『日韓連帶の思想と行動』, 東京, 現代評論社.  
勝崎康夫
- 1972 :『棄民(日朝のゆがめられた歴史のなかで)』, 東京, サイスル出版會.  
梶村秀樹
- 1982 :『解放後の在日朝鮮人運動』, 神戸, 朝鮮史セミナー運營委員會.  
中川信夫
- 1975 :『日韓問題の歴史と構造』, 東京, 未来社.  
岡倉吉志郎, 長谷川正安
- 1973 :『民族の基本的權利』, 東京, 法律文化社.  
佐藤勝己
- 1977 :『在日朝鮮人—その差別と處遇の實態』, 東京, 同成社.  
Gohl, Gerhard
- 1976 : *Die Koreanische Minderheit in Japan als Fall einer "politischethnischen" Minderheitengrupp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Mitchell, Richard
- 1967 :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e, Changsoo
- 1976 : "Ethnic Discrimination and Conflict: The Case of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in W.A. Veenhoven ed. *Case Studies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Lee, Changsoo and G. De Vos
- 1981 : *Koreans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e, Kwang-kyu
1982.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in D. Wu ed. *Ethnicity and Interpersonal Interaction*. pp. 165~180.  
Wagner, Edward
- 1951 :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N.Y.,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